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노년, 연령주의, 타자화, 경청, 맥락화

■ 투고일: 2014.7.31 ■ 수정일: 2014.9.9 ■ 게재확정일: 2014.9.10

I. 들어가는 글

다양한 학문분야의 참여에 의해 전개되어 온 노년 연구는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론적 정향을 보인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가족학, 간호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기초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만큼 각 이론적 시각이 지니는 특징과 장점, 한계와 단점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왔다.

한국의 노년 연구의 이론적 정향에 관한 근래의 논의는 주로 이제까지 제기된 노년학 이론에 비추어 한국 노년 연구의 성과를 개관하며 장단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에 관한 각 연구자의 입장이 개진되어 왔다(정경희 외, 2006; 원영희·모선희, 2008; 박선권, 2012; 최은영·김정석, 2012). 하지만 연구자가 노년 연구에 관한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긴요한 노년 연구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노년의 경험을 ‘맥락화’의 토대 위에서 파악하고 또 노년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노년 연구라는 주장과 이와 관련된 이론적 입장을 개진하려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젠더, 신분, 계급, 인종 등의 다양한 차원들이 접합하며 노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시각과 넓은 접면을 지닌다. 또 이 연구는 노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노년들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적 노년 연구의 주장(Moody, 2002)과도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적 접근은 실제노년 연구에 있어서는 구조적 힘들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를, 또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거시적 시각에 한정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박선권, 2012).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미시적 맥락에 어떻게 거시적 힘들이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또한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과 환경 속의 노화과정을 탐색하고, 서로 분리된 접근처럼 보이는 내용과 방법의 통합을 시도하는 다학문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애경로적 접근과도 친연성을 지닌다. 하지만 생애경로적 접근은 노년의 삶에 작동하는 다양한 환경적 변인들에 주목하면서도 노년 스스로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러한 힘들의 작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위자성’(agency)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약점들이 극복되려면 노년의 삶과 경험에

대한 어떠한 접근법과 이론적 입장이 필요한지를 개선하려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연구가 제안하는 연구의 틀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노년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즉 이 글에서의 제안은 '선진적 현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강박이 노년이라는 범주를 '시대적 타자'로 주변화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년이 서사의 주체로서 승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토대를 두고 있다. 노년 연구에 있어서 경청에 대한 강조는 이런 맥락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노년이든 계급이든 젠더든 모든 분석적 범주들은 현실에서 어떤 고정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맥락에서 다른 변인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각 변인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을 드러내려 한다. 노년의 삶과 경험이 처해 있는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노년 연구에 대한 제안은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현실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접근법의 하나로 제시될 것이다.

학문의 외양을 한 지식체계 그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고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적 실천의 일부라는 사실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에 개입하는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이 시점에서 떠안아야 하는 과제를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화두로 점검해 보려 한다. II장에서는 기존의 노년 연구를 포함해 노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시선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 노년연구가 문화적 실천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입장이 개선될 것이다.

II. 한국사회 노년담론의 연령주의와 노년 연구

1. 이질적 타자로서의 노년: 미디어와 노년 연구가 생산하는 부정적 노년담론

노년에 관한 모든 담론은 특정한 노년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색안경'으로 작용하며, 우리는 그 색안경이 채색해 보여주는 노년의 이미지에 기초해 노년을 인식하고

노년의 삶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TV의 단골 메뉴인 ‘소외되고 가난한 노안’의 이미지는 대부분 노년을 주체가 아니라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구성해 내며, 노년 복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나 더 나아가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노년 인식도 이런 담론으로서 기능하는 이미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현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관한 어떠한 이미지와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또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이 노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성찰적 노년 연구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다.

현대사회의 노년 이미지와 담론의 생산주체로서 비중이 큰 TV는 노년을 재현함에 있어 일면 다양성을 보이지만 심층적 보도에서는 주로 ‘노인’들의 ‘문제’에 주목하는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다(김숙·박주연, 2014). 광고에 등장하는 노년의 경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역동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 시혜와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존재로 그려지며(양정혜, 2011) 과거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김미애, 2010).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주로 근대적 성취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익명의 노년들을 조명하며 그 과정에서 특히 이런 노년들을 ‘노인’이라는 용어로 호명한다. 가령 미디어는 노년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에는 ‘노년’ 혹은 ‘실버’와 같은 용어를 제목에 사용하고,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이라는 용어는 미약한 존재감, 혼란, 소외, 가난, 건강 등의 문제로 가득 찬 음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노년들을 지시하는 용어가 되었다(정진웅, 2012).

노년담론의 생산주체로서 노년 연구도 부정적 노년 이미지의 확산에 기여할 위험성이 있다. 노년 연구는 노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여 이에 대한 비판이 종종 제기되어 왔으며(Nydegger, 1981), 최은영과 김정석(2012)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년 연구에서도 아직도 노화를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우울, 학대, 자살, 스트레스, 차별, 외로움, 빈곤, 폭력 등은 노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다. 노년 연구의 이러한 문제중심적 경향성은 노년학이 현실에서 노년이 겪는 문제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으며,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는 학문적 경향성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문제로서의 노년’이라는 시각과 ‘문제를 지닌 노년’이라는 시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Ward, 1984), 노년의 문제에 주목하는 모든 연구들이 노년을 그

자체로 문제의 시기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노년의 문제들에 주목하는 연구경향이 지속되면서 현실에서는 ‘노년’과 ‘노년의 문제’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얽히고설킨다. 그 결과 문제중심적 노년 연구는 연구가 지닌 선의에도 불구하고 노년담론의 일부로서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에 기여하기 쉽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년 연구가 설정하는 연구문제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자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어느 시기에나 적응은 필요하지만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아도, 청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나마 존재하는 청년세대의 적응에 관한 소수의 연구의 경우 ‘대학생의 적응’이나 ‘탈북청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같이 적응의 대상은 사회나 대학이지 청년기 자체는 아니다. 이에 비해 노년기 적응에 대한 노년 연구의 관심은 부지불식간에 노년기 자체를 적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노년기 적응에 필요한 전략’과 같은 문제설정은 노년 자체를 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시기로 간주하는 연령주의적 시선을 복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년의 삶의 만족도 혹은 복지감에 대한 노년 연구의 과도한 주목도 노년을 이질적 타자로 간주하게 될 위험성을 지닌다. 삶의 만족도라는 주제는 사회노년학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또 가장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 된 주제이며(Horley, 1984) 이러한 관심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상이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상이한 학문적 관심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그 사회가 특정한 사회적 범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대나 예상, 혹은 고정관념을 반영하기 쉽다.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관심은 발달, 성취, 적성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반면, 노년세대의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만족도나 적응 문제에 관한 시선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성은 혹 학문적 시선이 노년을 만족이나 적응 이외에는 달리 추구될 만한 어떠한 의미도 남아있지 않은 쇠퇴의 시기로 타자화하는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의 시선이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정진웅, 2012). 노년도 다른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구성하는 서사적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 연구의 흐름이 만족이나 적응이라는 좁은 영역으로 노년의 삶의 의미를 협애화시키고 있는 현상도 연령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부정적 노년 이미지와 담론의 문제는 노년학이 피치 못하게 노년을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구성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Vesperi, 1985). 노년 혹은 늙음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범주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고 기능하지만, 노년학의 경우와 같이 노년이 학문적 연구의 특정한 대상이 되고 나면, 가령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년으로 구분하는 경우처럼 노년은 단지 문화적 범주가 아니라 다른 연령대와 구별되는 사회적 범주로 구성된다. 문제는 한국사회와 같이 지배적 노년담론에 의해 노년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노년 연구들이 노년의 문제들을 역할상실과 같은 외부적, 혹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기 쉽다.

부정적 노년의 이미지의 핵심에는 '과거에 고착되어 근대의 성취로부터 소외된 무력한 타자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다(정진웅, 2012). 타자는 흔히 주체가 자신의 속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성이 투영되는 범주, 즉 '은폐된 자신'(underground self)이다. 가령 서양은 스스로의 속성 중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속성을 동양에 투사함으로써 동양을 비이성적이고 불가해한 존재로, 과거에 고착되어 합리성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한 존재로 형상화한다(Said, 1979). 이런 속성은 바로 현재 청장년 중심의 한국문화가 노년에 투사하는 속성들과 평행을 이룬다. 오리엔탈리즘이 근대적 가치에 대한 서구의 강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노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타자화도 동일한 성격의 문화적 강박과 선망을 드러내는 국내판 오리엔탈리즘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흔히 투사되는 '촌스러움'이나 '비합리성'과 같은 특성들은 '선진 문명'의 성취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박과 맞물려 있다. 요컨대 '노인'이라는 범주는 현대 한국사회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싶은 속성들을 투사하는 대표적 문화적 범주가 되었다.

노년의 타자성이 심화된 연령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우선적인 범주로 개인에게 강요된다. 노년의 경우 나이라는 특성은 개별적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우선하는 특성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특성보다 장애라는 타자성이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 노년은 연령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뒤편으로써 정체성을 구성할 것을 강요받는다. 한국사회의 노년 주체는 연령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타자화의 담론의 호명으로 인해 자신을 주체로 세우기가 쉽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 놓여있다.

만일 노년이 현재와 같이 타자화,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년 연구가 지니는 문화정치적 함의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범주의 주변화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년 연구가 어떻게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자로 재현하지 않고 노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기한 현상과 문제들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년 연구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노년 연구가 노년을 이질적 타자로 재현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년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행위자성을 지니고 스스로의 경험과 행위의 의미를 구성하는 서사의 주체로 승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I장에서 제안될 맥락화와 경청의 노년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다.

2. 노년 호명과 범주화: 노년 연구의 연령주의

2012년 서울시는 부정적 어감이 강한 ‘노인’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이름을 공모한 결과 ‘어르신’을 공식용어로 선정했다.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지칭어는 노년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령 “내가 어르신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쓸 수는 없다.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노년을 객체로 호명하는 호칭어이지 지칭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르신이라는 용어의 제안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노년을 주체로 승인하지 않고 객체의 자리에 묶어놓는 용어가 된다(정진웅, 2012).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어르신이라는 용어뿐만이 아니라 노인, 혹은 노년이라는 용어도 그 호명의 주체가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는 연령주의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관건은 누가 현실에서 타자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언어권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다. 가령 동양인을 ‘황인종’으로, 아프리카인을 ‘흑인종’으로 부르는 것이 ‘백인종의 언어권력이 만들어 낸 분류체계’이듯이, ‘노인과 어린이’라는 명명법은 청장년 세대 중심의 언어권력이 붙인 이름이다. 학부 수업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며 만일 노년이 언어권력의 주체로 세대구분을 하게 된다면 중년과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불릴 것 같은지를 묻자, 한 학생이 바로 “어린애들”과 “더 어린애들”이라고 답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50대의 필자에게는 이 대답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삶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청년시절의 나의 모습도, 또 현 젊은 세대의 모습도 순간 청년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리다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에 기초해 젊은 세대를 ‘어린 세대’로 호명하는 것이 그 세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포착한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든 세대를 ‘노인 세대’로 부르는 현재의 호명방식도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다.

엄밀하게 보면 가리킴말을 포함해 모든 호칭은 누가 부르고 누가 불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적 용어, 즉 부름말의 성격을 지닌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종종 길거리나 식당 등의 익명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지칭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령 어린 아이가 옆자리의 50대 어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면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면 할머니(할아버지)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사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가리킴말도 사실 관계적 언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서너 살 아동들에게 5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십대에게 몇 살부터 노인에 속하냐고 물어보면 때론 “40대 후반부터”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어떤 젊은이들에게 40대 후반은 충분히 ‘늙은’ 나이이다. 반면 오늘의 농촌에서는 주로 50대가 ‘청년회장’을 맡으며, 미국의 은퇴촌에서는 80을 넘긴 주민들이 ‘어린이’의 의미를 담은 junior라는 용어로 60-70대 주민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요컨대 할아버지나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객관적 나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호칭어로 쓰이든 지칭어로 쓰이든 연령을 지시하는 용어들은 관계 맥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젊은 세대는 일상에서 자신은 청년이라는 식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노년 세대는 ‘노약자석’, ‘노인의 날’, ‘노인장’ 등 일상에 상존하는 호명의 계기들로 인해 자신이 노년임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는 환경에서 산다. 노년뿐만이 아니라 여성, 유색인종, 장애, 가난 등 모든 주변성에 대한 인식은 항시 외부의 시선과 대접과 호명에 의해 비롯된다. 지하철에서 최초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 받는 경험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노년을 주제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년, 노인이라는 용어도 근본적으로는 관계적 호명이자 분류법이며, 그 호명의 주체인 ‘젊음’의 시각에서 구성된 문화적 범주라는 사실이 성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권력을 지닌 주체는 스스로를 호명하지 않으며, 또 타자에 의해 호명당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물다.

노년 연구에서도 나이가 “탄탄한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포괄적”(Biggs et al., 2003: 246)인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나이는 종종 그 뒤에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은폐하는 가면이다(Featherstone & Hepworth, 1993). 노년에 대한 연령주의적 시선이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며 지내야 하는 일상에서 노년은 그 가면 뒤의 ‘맨얼굴을, 혹은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60대 고교동창생들의 모임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그 공간에서는 서로서로가 나이라는 가면 뒤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청춘’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철없는 노안의 얘기로 곤잘 치부되곤 하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는 변수의 효력 없음을 이미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주책’으로, 혹은 ‘철없는’ 말로 폄훼하려는 태도야말로 노년을 욕망과 쾌락의 동등한 주체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연령주의 담론의 효과이다.

나이나 노년이라는 범주는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텅 빈 변수(empty variable)’이며(Neugarten, 1968), 특히 나이와 건강, 혹은 사회적 위상의 상관성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80대에도 50대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며 아직도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노년의 경우 나이가 그들의 삶에 관해 어떤 통찰을 가능하게 할까? 드물지만 은퇴촌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같은 마을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65세를 넘겼다고 이 모녀를 노년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그들의 삶에 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노년의 삶의 경험은 젠더, 계층, 건강, 거주 지역, 퇴직 여부,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등의 수많은 요인들이 어떻게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이할 수밖에 없다. 65세부터 노년이라는 범주화는 노년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모든 범주는 그 범주에 붙여진 이름이 고착되면, 그 범주가 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안’이라는 범주는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우울함과 불행에 대한 지식만 더해주기 쉽다. 노년 연구도 지배문화에 의해 이미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된 노년의 이미지에 균열을 가하지 못하면 노년이라는 범주를 호명하면서 다시 그 음울함을 광고하는 학문이 될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범주를 필요로 한다. 장애라는 범주든, 동성애라는 범주든, 혹은 노년이라는 범주든 학문에서 범주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 범주에 누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 설명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다. 노년 연구가 때론 3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과 노년 내부의 엄청난 다양성을

노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포괄해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설명은 어떠한 현실적 효과를 낳는 학문적 실천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으로서의 노년학은 누구의 시선과 목소리와 이해를 반영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가 성찰되어야 한다(Estes et al., 2003). 타자가 ‘오피된 자신’이라면, 혹은 생물학적 나이에 근거해 노년을 범주화하고 연구하는 행위에는 우리 내부의 ‘노년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노년을 이질적 타자로 간주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이 시대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노년 연구가 이 시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년을 ‘우리와 같은 행위자성과 의미의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 모자란 이질적 타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 연구자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혹은 연령주의와 관련된 현상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가령 노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종종 노년세대와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중·장년세대의 기득권을 당연시 하는 연령주의 담론이 아닐까? 또 노년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보살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노인 부양’으로 국가가 휘청댄다는 얘기는 있어도 어린이나 청소년 부양으로 국가가 휘청댄다는 얘기는 없을까? 이런 현상은 노년세대를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어진 존재, 즉 ‘용도폐기’ 단계에 이른 잉여로 간주하기 때문은 아닐까? 강제 은퇴는 많은 나라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에 따라 삶에 대한 조망점이나 선호되는 가치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더라도, 혹은 그런 변화마저도 연령주의 담론의 영향으로 ‘자기검열’한 결과인 경우는 없을까? 노년 연구가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자로 간주하는 한국문화의 연령주의적 시선에 묶여있지 않으려면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연령주의가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조용한 폭력”(김은실, 2001: 38)이라면, 노년 연구자라고 해서 그런 문화의 바깥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앞 장과 본 장에서는 기존의 노년 연구의 지배적 흐름이 지니는 문화정치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필자의 대안적 접근과 이와 관련된 이론적 입장을 개진하려 한다.

Ⅲ.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1.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중층적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노년 연구

나이는 그 자체로는 비어있는 변수라는 주장은 노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이질성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나 혹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의 관점과 어느 정도 친연성이 있다. 젠더나 계급 차원에서 노년의 이질성과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노년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오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박선권, 2012). 이는 각 개인들이 지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치성이 나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며, 따라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사회적 위치성(positionality)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과 역동적으로 얽혀 다양한 ‘노년들’을 구성하는지가 주목되어야 한다(Acker, 2008). 노년 여성의 삶은 노년이나 여성 중 하나의 범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노년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학의 시각과 페미니즘적 시각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년 남성과도, 또 젊은 여성과도 다른 노년 여성의 상이한 경험의 차원들이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험의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노년 연구는 가난이든, 고령이든, 젠더이든, 모든 변인들은 이들이 현실의 구체적 맥락에서 다른 변인들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가령 노년 여성이 겪는 문제는 이를 단순히 젠더차별과 연령차별의 기계적 결합의 결과로 간주하거나, 혹은 노인 문제라는 일반론의 특수한 사례라는 식으로 간주해서는 그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없다(정희진, 2005). 노년 내부의 이질성을 포착해 노년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노년이나 여성이라는 범주도 그 자체로 아무런 고유한 경험이나 존재를 지시하지 못하며, 따라서 노년 여성이라는 범주도 그에 대응하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상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엄밀히 따져보면 나이만 비어있는 변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변인들도 그 자체로는 모두 비어있는 변수가 된다. 요컨대 각 변수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각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른 다양한 요인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노인 지식인’이라는 표현은 부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지혜로운 노안’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는 ‘노안은 ‘지식’의 주체가 되기에는 모자라는 타자로 여겨지지만 ‘지혜’의 주체로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급변해 온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라는 기표는 과거에 묶여 있는 존재를 지시하며, 따라서 지식인, 즉 ‘근대적 이성의 주체가 되기에는 모자란 존재로 간주된다(정진웅, 2012). 그래서 게 이 지식인이나 여성 지식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인 지식인이라는 말은 없다(정희진, 2005). 이에 반해 ‘지혜로운 노안’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지혜의 성취에는 누적된 삶의 경험과 통찰이 요구되므로 근대적 이성만으로는 성취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근대 이성의 도구적 측면은 때론 오래된 지혜를 용도폐기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노인 혹은 노년은 그 고유한 의미가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위치성을 부여받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 정체성’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60대 고교 동창 모임에서는 노년이라는 정체성은 미약해진다.

이렇게 노년의 특정한 경험의 맥락과 그 속에서 노년이 부여받는 위치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노년이라는 범주를 아무리 세분화해도 그런 세분화 자체가 현실에서 노년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증진시키기는 어렵다. 가령 노인이라는 범주를 다시 ‘신분적 위치가 높은/낮은 노인’이라는 범주로 세분하더라도, 이 범주도 관념적이긴 마찬가지며, 따라서 ‘신분적 위치가 높은 노인’과 ‘신분적 위치가 낮은 노인’의 구체적 삶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이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신분적 위치가 높은 노인들은 자신들이 단지 익명의 ‘노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는 순간 그들도 ‘신분적 위상이 낮은 노인’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석에 앉았다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노년 남성으로부터 “거기 앉으면 좀 젊어지냐?”는 빈정거림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연령에 따른 공간분리, 노인 공경 혹은 배제, ‘경우 없는 노인’들에 대한 경계, 노년들 사이의 거리두기의 욕망 등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힘들이 작동하는 맥락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과 이들 변수들이 구성하는 경험의 맥락, 또 그런 맥락 속에서의 개별 노년의 위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분이라는 변인에 기대서는 이런 공간에서의 경험의 성격을 포착할 수 없다.

이런 맥락적 분석의 중요성을 종묘공원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¹⁾ 2007

1) 여기서 제시되는 종묘공원 노년남성들의 경험의 맥락과 위치성에 대한 분석은 즐고, “Stigma,

년 이전의 종묘공원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술에 취한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때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이런 광경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종묘공원은 ‘노인들의 해방구’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런 모습이 일본의 한 방송에 보도되면서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종묘공원의 모습이 사회적 주목을 끌게 되자, 서울시와 종로구는 탈선과 무질서의 현장인 종묘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종묘공원 ‘성역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노점이나 상인들의 공원 내 진입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주류의 판매나 고성방가, 음주가무 등의 행위가 단속되고 있다.

그 분위기에 있어 매우 ‘어릿광대’적인 종묘공원을 찾는 노년 남성들의 놀이문화는 40~50년 전의 중하위계층 남성들의 ‘길거리 놀이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가 권력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제례가 치러지는 경건한 종묘의 앞마당에서 ‘하층 계급 노인’들이 벌이는 놀이문화에 제재를 가했다. 국가주의적 시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하위계층 노년 남성들이 질편한 놀이판을 벌이고, 또 이런 모습이 종묘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묵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종묘공원이 탈선과 무질서의 현장이 되어 이를 시민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성역화를 시행한다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논리에 따르면 종묘공원에서 소일하는 노년 남성들은 법적으로는 시민일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시민이 되기에 충분치 못한 존재가 된다.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성원권은 지배문화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정도에 의해 위계화된다. 만일 종묘공원이 대학생들이 모여 세계적 유행의 최첨단에 있는 청년문화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면 어떨까? 그 경우에도 지배체제는 이를 퇴폐적 풍기문란이나 탈선과 무질서로 제재할까? 한때 흑인들의 ‘질 낮은 힙합 문화’를 수입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위선양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비보이(b-boy)들이 춤판을 벌인다면 어떨까? 종묘공원을 찾는 노년 남성들의 나이와 낮은 계층적 배경, 이들의 놀이문화의 과거적 성격과 ‘국제적 표준’에 미달하는 ‘질편함’ 등은 이들의 존재와 놀이문화에 낮은 신분적 위치성이 부여되는 근거가 된다.

lifestyle, and self in later life: the meaning and paradox of the older men's hang-out culture at the Jongmyo park”(Chung, 2008)의 내용에 기초해 요약한 것임.

과거에도 놀이문화에 신분성은 존재했다. 젊은 대학생의 놀이문화는 젊음의 열정을 발산하는 '통기타 문화'가 되지만, 더 이상 욕망과 열정의 주체로 승인되지 못하는 노년의 놀이는 '주말 유원지의 퇴폐행락'이거나 '관광버스 춤판'이 된다. 비보이들도 경제력이나 학력이 낮은 경우도 많지만, 이들의 젊음, 힙합이라는 놀이문화가 지닌 첨단성, 높은 국제경쟁력 등의 중심성은 그런 주변성을 상쇄시키는 신분성을 획득하게 한다. 이에 반해 젊음, 경제력, 학력, 현대성 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종묘공원 노년 남성들의 놀이문화는 현 한국사회의 지배문화가 규정하는 계급, 연령, 신분, 세대와 관련된 국가주의적, 연령주의적, 계급적, 시대적 규칙을 교란한다. 종묘공원의 성역화는 이러한 지배적 상징질서가 규정하는 '제자라'를 지키지 않고 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하층계급 노년 남성들의 놀이문화에 가해진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단순히 도심 속 풍기문란에 대한 '자연스러운' 단속으로 보일 수도 있는 종묘공원 성역화 현상에는 이렇게 연령주의, 신분주의, 현대주의,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 세대 남성들의 놀이문화는 "집에 있기 갑갑해" 밖에서 소일하는 남성들의 문화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노인들의 해방구'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의 중층적 작동을 은폐하고 이를 '불량스러운 노인들의 일탈'이라는 담론으로 재현한다. 종묘공원 노년 남성들의 '질편한' 놀이문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라는 현상의 배후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 남성들의 행위와 그 의미, 단속행위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묘공원이라는 구체적 현장에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들이 그곳의 노년 남성들의 위치성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에 대한 맥락적 분석이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이후, 언어적 범주화는 현실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인식을 매개하는 형식적 틀, 즉 담론의 일부로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는 사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의 주장도 이런 인식론에 기초해 있다. 즉, 여성이든 노년이든 어떤 범주이든 각 언어적 범주에 대응하는 일률적이고 고정된 현실이나 정체성은 가정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변수라는 지적은, 단순히 나이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도입해 노년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이란 다양한 변인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단독적으로 작동

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신분차별이나 젠더불평등 등의 다른 차별적 기제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연령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의 삶에 작동하는 연령주의는 종묘공원 노년 남성들의 삶에 작동하는 연령주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 노년의 강제로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심하게 작동하고, 나이에 따른 연령차별은 여성에게 더 일찍,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연령차별은 신분적 차별과 젠더차별과 같이 접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컨대 구체적 현실에서 나이가 '띠계' 되는 의미는 다양한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가 구체적 현실에서 중층적으로 접합해 어떠한 맥락을 구성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노년은 어떠한 위치성을 지니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년을 일종의 상수로 놓고 거기에 한두 가지의 변인을 더해, 그런 변인이 주어지면 노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구체적 현실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 중층적 변인들과 담론들의 영향을 미리부터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인도 현실에서는 단독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한두 가지 변인들의 영향에 주목하는 노년 연구들의 관념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구체적 현실에서의 노년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요컨대 노년의 경험을 구성하는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중층적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주목하는 연구는, 나이, 신분, 젠더, 외모, 장애 등의 변인들을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범주로 간주하거나 혹은 노년의 경험을 이들 범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다. 연구가 밝혀야 할 것은 오히려 이들 각각의 범주에 작동하는 연령주의, 신분주의, 가부장주의, 외모주의, 장애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중층적으로 결합해 구체적 현실에서 노년의 경험을 조건 짓는 맥락을 구성하고, 그 맥락 속에서의 노년의 위치성이 노년의 경험을 어떻게 채색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삶의 구체적 장면들에서 노년의 경험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맥락성에 주목하는 연구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노년 연구에서 종종 제기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노년에 관한 이론의 수립(Bass, 2009)에 대한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 필자의 입장은 나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이론의 수립은 가능하지 않으며, 혹 가능하다 해도 노년의 다양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급변하는 오늘의 세상은 현실에 대한 포괄적 설명은커녕 노년의 삶에 중요한 이슈들을 제 때 포착해 제기하기에

도 벽찬 환경이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보다 긴요한 연구는 삶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의 수립이기보다는, 노년의 다기한 경험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맥락화하고 조명함으로써 노년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힘들이 노년의 위치와 경험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노년이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삶에 작동하는 구조적 힘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저항하는지, 또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때론 순응하고, 때론 이를 비판적으로 간파하고 거스르는 시도를 하면서 살아간다.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과 이들의 대응에 주목하는 접근은 이런 점에서 노년을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을 안고 현실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주체로 노년을 재현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이런 접근은 노년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자가 아니라, 처해 있는 조건은 '우리'와 다르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노년 연구가 곧 노년을 타자화하는 지배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문화적 실천이 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러한 접근법은 질적 접근법, 특히 인류학적 현장연구의 연구방법과 친화성을 지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노년 연구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노년 연구의 지배적 흐름은 그 자체로서 오늘의 노년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변인들의 지형을 보다 면밀히 살피게 해준다는 점에서 노년 이해에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일반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의 노년의 경험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고 그 현장에 관여하는 중층적 이데올로기들의 작동을 밝힘으로써 노년의 삶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접근은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미약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제기하는 이슈는 일차적으로는 근래의 노년 연구의 시각과 접근법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일차적으로는, 혹은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제안되는 연구방법이 기존의 다양한 전공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제안되는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가 모여 협업하는 방식의 학제간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학제간 연구는 상이한 전공분야 간의

언어나 인식론의 차이로 인해 소통에 있어서 또 각 분야의 연구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 시키는데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 보다 바람직한 학제간 연구는 다양한 전공들이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유지한 채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분야가 점차 다른 분야에서의 성취를 흡수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던 기존의 전공 정체성의 외연을 점차 허물고 확장해 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생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간의 다분과적 접근을 넘어, 각 연구가 생명과학,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형태로 한 연구가 확장되는 것이겠으나(박선권, 2012),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결합이 난망한 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시각을 아우르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학제간 연구도 다른 학문분야의 '타자성'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공 간의 경쟁이 강제되면서 각 전공은 오히려 각 전공의 특수성이 지나는 효용을 밖으로 과시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오늘의 대학사회의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제간 연구라는 이름하에 학문적 언어, 방법론, 인식론이 상이한 기존 학문분야들 간의 기계적 결합은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전문화라는 기치 아래 분업화되어 온 근대학문의 한계가 성찰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노년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 결국은 노년학이라는 학문분야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이라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2. '경청'의 노년 연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까지 노년은 주로 비노년 주체가 마련해 준 거울에 비친 이질적인 객체로 존재했다. 노년 연구도 노년을 주로 '설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주체로서의 노년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또 노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결과 노년은 타자의 언어를 경유해서만 세계와 만나고 소통하고 발언하는 존재가 되었다.

노년을 설명의 대상으로 묶어두면 노년학은 노년에 대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진리의 사제'라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근대는 지식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다. 그렇다면 지식권력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노년을 어떠한 주체로 구성하는

담론인지가 질문되어야 한다. 근대의 통치 권력은 지배대상을 객관화하며, 그런 객관적인 삶의 세계로부터 효율적인 통치술이 고안된다. 노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못하고 설명으로만 일관된 노년 연구는 혹 본의 아니게 노년을 통제, 관리하는 기술에 이용될 수도 있다. 노년 연구가 이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나려면 노년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년의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년은 자신들이 겪는 차별의 경험을 언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노년이 경험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종의 터부여서 대부분 느낌의 영역에 남겨지므로(김은실, 2001), 노년이 경험되는 방식은 담론의 영역을 비껴가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단지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타자의 말이 지닌 ‘타자성’에 귀 기울이는 것”(엄기호, 2014: 269)을 의미한다. 타자성을 지닌 말이란 곧 낯설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와시다 키요카즈(2014)는 말하기는 ‘전신으로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입안에서 웅얼거릴 때도 그 행위는 전신으로 하는 것이어서 말하기는 하나의 몸짓으로, 사고와 감정이 녹아있는 몸짓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없음’이란 괴로움에 갇혀 속으로 말을 삼키는 행위다. 노년의 말없음도 말하기의 일종이며 따라서 경청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는 경청은 “그 말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간절한 침묵”(김영민, 2008)과도 같은 태도다. 이런 경청의 태도는 그동안 “은폐되거나 억압된 것, 놓쳤거나 흘린 것들”까지 말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 작업은 노년이라는 타자의 곁에서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노년을 서사의 주체로, 또 그런 서사가 구성하는 의미의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경청을 통해 노년 연구는 노년으로 호명되는 사람들의 시각과 언어로 세상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볼 것을 요구하는 학문이 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타자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일면 낯선 노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처럼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작업에는 지적 상상력과 역지사지의 태도가 요구된다. 예컨대 누구나 아프거나 지쳐 거동조차 힘든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으며, 이런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우리는 힘겹게 운신하는 노년의 모습에서 타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10대의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마치 비존재인 듯이 취급하며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젊은 세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노년 세대가 겪는 소외의 감정과

어느 정도의 공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를 통해 노년의 타자성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 스스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혹은 조각나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타자는 은폐된 자신이며, 노년이라는 타자는 흔히 얘기되듯 단지 우리의 '미래인' 것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은폐한 현재'이기도 하다.

경청을 통해 타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와 타자의 정체성을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공고한 울타리를 치는 지배담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빚어내는 특정한 욕망과 두려움, 선망과 강박을 상당부분 공유하기 마련이다. 가령 1980년대에 청년세대의 '장발을 비난하고 단속하던 기성세대의 머리도 같이 길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날 노년의 고유한 속성으로 치부되는 특성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노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특성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노년을 이질적 타자로 규정하는 담론은 노년과 비노년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공유하는 점이 더 많다는 당연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차이로 유도한다. 노년의 고통과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노년과 비노년을 '시대의 어둠을 함께 보는 사람들'로서, 즉 '동시대인'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노년은 더 이상 낯선 타자가 아니다.

경험의 맥락화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청을 중요시하는 노년 연구에서도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노년이 서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노년과 '허심탄화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신뢰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제언도 전공의 연구방식에 따라서는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노년 연구가 진리의 사제의 위치를 점하고 노년을 설명의 대상으로 이질적 객체의 자리에 묶어두는 것을 넘어 노년을 서사의 주체로 세우고 이해하려는 문화적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이 필수적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방향선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노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노년담론으로서 연령주의와 노년의 타자화 담론에 맞서려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사적, 인문학적 접근의 확산이 필요하다.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화두로 이상에서 개진된 노년 연구에 관한 필자의 제언

은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지닌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이 아니라, 연령주의적 성격의 노년 담론을 넘어서려는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에 친화적이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적 시각과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시각과 입장이 개별적 연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될지는 이런 시각과 입장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몫일 것이다. 필자의 시각과 입장에 대한 공감이 전제되면 연구문제의 설정이나, 연구의 디자인, 용어 사용, 개념의 범주화 등의 개별 연구의 다양한 영역에서 본 논문에서 개진된 시각을 적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 적용 범위나 영역은 연구자가 속한 전공의 학문적 전통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나가며: 노년 주체의 수립을 위한 노년 연구

이상의 논의는 지배문화에 의해 노년이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로 재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긴요한 노년 연구는 노년을 삶과 인식의 주체로 세우는 연구라는 필자의 입장에 기초해 있다. 이런 점에서 '설명'에 치중하는 현 노년 연구의 지배적 흐름은 노년을 타자화하는 지배담론으로부터 충분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노년의 삶을 단지 '설명'하려는 연구 틀에서는 노년은 외부 변인들의 작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재현되며,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맞서고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노년의 목소리와 행위자성(agency)이 포착되기 어렵다.

어떤 노년 연구가 노년을 주체로 세우는 연구가 될 수 있을지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에 '관한' 학문에 머물거나, 여성 차별의 실상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삶과 사유의 주체로 세우고 여성주체의 입장과 시각에서 삶과 세상을 조망함으로써 기존 학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여성학은 여성의 목소리, 곧 하위주체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말할 권리를 복원하고 증언하려 노력한다. 경청을 중시하는 노년 연구에 대한 제언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

물론 사회과학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며, 따라서 노년 연구가 해석에만 경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경청을 통해 노년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서사적 주체로서의 노년이 어떻게 지배담

론에 균열을 가하고 행위자성을 드러내는지가 포착 가능해 지며, 그런 토대 위에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병존 가능하다. 요컨대 설명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노년 경험의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접근법은 설명과 해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담론과 같은 구조적, 거시적 힘들이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해내는지에 관한 분석은 설명에 해당되며, 노년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신의 행위와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해석에 속한다.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고 그곳에서 구성되는 서사를 경청하는 접근은 이렇게 설명과 해석 사이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노년을 삶과 사유의 주체로서 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근래에 은퇴 이전의 신분이 지닌 중요성이 약화되고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핵심으로 하는 노년문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노년문화의 이런 경향성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단계로 접어드는 서구사회에서는 더 두드러져 노년의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서는 과거의 직업에 관해 물어보거나 또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터부이다. 그래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으면 따돌림을 각오해야 한다. 맥락화와 경청의 접근법은 이러한 노년의 하위문화를 포착하고, 삶에 관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는 주체적 노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평등주의적 노년문화가 자리한 연구현장에서는 중년을 끝없이 연장하려는 '젊은 노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는 상이한 노년의 삶의 의미에 관한 주체적 서사들을 경청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워 오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조망하는 새로운 서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청은 노년 주체가 구성하는 이러한 서사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공, 중년 늘이기, 외부적 성취 등과 같은 지배문화의 가치들을 계속 추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결국엔 점점 더 의미 없어질 것이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서사가 대두하기도 한다. 평등주의적 노년문화의 서사는 신분을 통한 속물적 인정투쟁과 중년까지의 삶을 지배하던 지배문화의 강박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화적 토양을 제공한다. 요컨대 노년의 삶은 여성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문화비평적 시선을 내장하고 있으며, 노년 연구는 노년의 이러한 문화적 성취들을 삶의 구체적 맥락에서 포착하고, 경청하고, 증언함으로써 삶과 서사의 주체로서의 노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노년 연구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가 그 자체로는 노년의 삶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조망점의 획득과 같은 매우 제한된 의미만 지니는 변수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년을 어떤 고유한 본질을 지니는 타자로 상정하는 연령주의적 시선이 극복되면, 노년에 겪게 되는 문제는 많은 경우 다른 층층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작동이 빚어내는 일종의 효과로 설명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년을 주체로 세우는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역설적으로 노년학이라는 학문의 경계를 점차 허무는 작업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년이라는 범주에 타자성이 집적된 현실에서 노년의 주체화는 그 범주 자체의 교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시각을 낮설게 응시하며,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령주의를 폭로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 이론들에 스며있는 어린이 편향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이런 성취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Biggs et al., 2003: 246). 이를 위해서는 노년 연구자들 스스로가 연령주의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이 참사에서 주목받은 죽음은 거의 '꽃피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었다. 시인 고은(2014)은 "이름짓지 못한 시"라는 제하의 시에서 "내 새끼들의 꽃 생명이 초록생명이 어이없이 몰살"된 것을 애도한다. 사실 거의 모든 추모의 언설이 그러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죽음에 주목하거나 그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말없음'에 주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에 연령주의가 얼마나 강한 마음의 습속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달리 말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연령주의적으로 주체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이론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모종의 선이해(pre-understanding)에 기초해 있으며, 연구자가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련의 문화적 가정들은 그러한 선이해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런 점에서 노년 연구자는 항상 노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한국사회의 연령주의를 반영하거나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진웅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년, 생애과정, 대안교육, 차별이며, 현재 노년의 정체성 위기, 한국사회 내의 타자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gchung@duksung.ac.kr)

참고문헌

- 고은(2014.4.8.). 이름짓지 못한 시.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34765.html.
- 김미애(2010). 광고에 묘사된 노년층의 역할과 이미지. *언론학연구*, 14(1), pp.3-40.
- 김숙, 박주연(2014). 텔레비전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연구. *사회과학연구*, 30(2), pp.281-300.
- 김영민(2008). *동무론: 인문연대의 미래형식*. 서울: 한겨레출판.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하나의 문화.
- 박선권(2012).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pp.73-101.
- 야감벤, 조르조(2010). *장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 양정혜(2011).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7(1), pp.72-106.
- 엄기호(2014). *단속사회*. 파주: 창비.
- 와시다 키요카즈(2014). *듣기의 철학*. 서울: 아카넷.
- 원영희, 모선희(2008). 한국노년학의 사회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노년학*, 28(4), pp.753-772.
-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6).
- 정진웅(2012).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최은영, 김정석(2012)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한국노년학회지* 게재논문의 '노안'개념과 주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19(1), pp.165-185.
- Acker, J. (2008). Feminist theory's unfinished business: comment on Anderson. *Gender and society*, 22, pp.120-125.
- Bass, S. A. (2009). Toward an integrative theory of social gerontology. In V. L. Bengtson, D. Gans, N. M. Putney, & M. Silverstein(Eds.), *Handbook of the theories of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pp.347-374.

- Biggs, S., Lowenstein, A., Hendricks, J. (2003). Where is theory headed? In S. Biggs, A. Lowenstein, & J. Hendricks(Eds.), *The need for theory: critical approaches to social gerontology*.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
- Chung, G. (2008). Stigma, lifestyle, and self in later life: the meaning and paradox of the older men's hang-out culture at the Jongmyo park. *Korea Journal*, 48(4), pp.93-114.
- Estes, C., Biggs, S., Phillipson, C. (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a critical introduction*.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Featherstone, M., Hepworth, M. (1993). Images in ageing. In J. Bond & P. Coleman(Eds.), *Ageing in society*. London: Sage, pp.304-332.
- Horley, J. (1984).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morale: two problems with the use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Gerontologist*, 24(2), pp.124-27.
- Moody, H. R. (2002). *Aging: concepts and controversies*. Thousand Oaks, CA: Sage.
- Neugarten, B. L. (1968). Adult personality: towards a psychology of the life cycle. In E. Vinacke(Ed.), *Reading in general psychology*. New York: American Book Co.
- Nydegger, C. N. (1981). Social gerontology and anthropology. In C. L. Fry(Ed.), *Aging, culture, and health*. New York: Praeger.
- Said, E.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Vesperi, M. (1985). *City of green benches: growing old in a new downtow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rd, R. A. (1984). The marginality and salience of being old: when is age relevant? *Gerontologist*, 24(3), pp.227-232.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A Proposal for Gerontological Studies In The Ageing Era

Chung, Gene Wo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Keywords: Old Age, Ageism, Otherization, Attentive Listening, Contextualization